

## 창세기(22)

다 같이 창세기 3 장 8 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 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6 천여 년 전에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왜 과거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숨은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 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며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 장부터 3 장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육신의 입으로 먹었을 때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찾아보았지요? 듣지 못하신 분들을 테이프를 들어보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한 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이 완벽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게 되니까 혼은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신체가 돼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몸은 늙어가기 시작해서 죽음이 시작되었는데, 930 년이 되어 비로소 호흡이 끊어진 것을 창세기 5 장 5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들을 어제 우리가 세 군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 장 3,4 절과 히브리서 1 장 2,3 절과, 골로새서 3 장 9,10 절에 나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죄가

없어지니까 영이 살아나고, 혼은 다시 구원받게 되고, 육신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과 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몸은 육신 자체는 그 형상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8 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지금 신음하며 기다리는 것은 바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 절,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하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숨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삭게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외 병자들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하시던 것,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도 가고 학교에도 숨어 있으니까 학교에 가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도 숨어 있으니까 직장에 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 숨어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그런 이유로 각기 장소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죄인들은 숨게 마련이예요. 죄를 지으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지명 수배되지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청년을 알았는데 이 청년이 브라질에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는 그곳으로 도망을 왔어요. 나중에 다 들통이 났어요. 그때 그것을 잊기 위해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한 곳에 있지를 못해요. 누가 자기를 죽이러 따라오는 것 같데요. 형사들이 따라오는 것 같데요. 나도 형사처럼 보였나 봐요. 자꾸 숨는 거예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 숨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처절하더군요.

현대인들은 말이죠,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 단어에 보면 adjust 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대처한다. 상황에 대처한다. 그것이 결국 ‘상황에 따라서 나를 숨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일시적으로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TV 나 라디오나 영화 등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속에 속 들어감으로써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멍해지니까, 꼭 마약을 한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버립니다. 죄의식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TV 같은 것을 많이 보면

정신이 멍해지고 성경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들었던 주일 설교가 멀리 있는 것 같고 정말 멍해집니다. 마약보다 더한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마약 환자나 알콜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이 환자다, 중독자다 해서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아, 나는 알콜 중독자다 라고 하며, 중독자 안에 숨어버립니다. 나는 마약중독자다 그러므로 마약 안에 숨어버립니다. 차라리 나는 마약을 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나는 술 취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요즘엔 용어를 drunkenness, 성경의 drunkenness 술 취한 자들을 alcoholic 으로 바꾸어 놓고, 마약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취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drug addicted 마약에 중독됐다 이렇게 함으로 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숨겨주고 영원토록 지옥가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재활센터(react center) 같은 곳은 환자 취급함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가는 재활센터를 보면 그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 스스로 위로합니다. 자기 죄를 그냥 드러내면 괜찮은데 ‘아,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자꾸 숨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아~ 당신 종교는 당신이 믿고 나는 내 종교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방해(bother)하지 맙시다.’ 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 ‘아,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며 숨어버립니다. ‘글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좀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기다려야 하니까 오늘은 그만합시다.’ 이게 다 숨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걸어 다닐 때나 뛰어 다닐 때 보면 뒤를 따라 다니면서 너 이것 만지면 큰일 나, 또 저것 만지면 큰일 나 하면서 경고를 해도 잠시 안 보는 순간 무엇을 잡아서는 입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브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에덴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옛날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째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빌립보서 2 장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랬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하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또 골로새서 2 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 신비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지요?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속에 다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내가 나쁜 마음을 품겠습니까? 깜짝 놀라야지요. 나쁜 마음을 품으려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깜짝 놀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육신이었던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 장을 보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가라는 데로 가고, 움직이라는 곳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철저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 장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산 자로 여기고 이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옛날에는 죄의 병기로 드렸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전도자들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전도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 시편 19 편을 보겠습니다. 지금 L.A 사람들만 다 모아서 들었냐 못 들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못 들었다고 못할 거예요. 들었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못 들었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19 장 1 절에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달았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이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학교 가서 태양계를 공부하고 우주 천체조직을 공부하다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는 빨갛게 되고 질 때 역시 노을이 빨갛게 되는 것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것을 예술가들은 사진을 찍고 아름답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태양이 질 때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로 물들었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들 즉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악인들의 피가 차서 그 옷까지도 아주 빨간 홍의가 될 것이라 말입니다. 이사야서 63 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뜨는 해가 붉은 이유는 자기 피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도 아직도 믿지 아니하여 그를 저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악인들의 피다.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일년 365 일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도 듣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계속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태양은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지구는 태양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달은 태양이 도는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달은 성도들이거든요. 달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태양 빛을 받아서 이 밤 같은 세상에 빛을 비추지만, 지구는 태양과 반대로 돕니다. 즉 이 현 세상은 하나님과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돌기에 세상을 최악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계시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심지어 한자에 13 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에도 엄청난 계시들이 들어있습니다. 알려고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 장 11 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찾지를 않습니다. 숨고 있습니다. 우리가 끄집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구해주어야 합니다. 신학교 교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 기록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 기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역사 기록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려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결국 철학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 장 11 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16 절을 보시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 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지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3 장 9 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죠?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생각할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텐데 왜 물을까?’ 물리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잠자는 죽은 영을, 파멸로 가는 혼을 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디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3 장을 다 읽어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그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 장 21 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에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두시어 그들에 몸을 서로 욱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를 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경배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런 구절들이 그들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 장은 이방인에 대한 얘기이고 2 장은 유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들의 있는 위치를 가르쳐주어야 되는데, 2 장에서 3 장까지 넘어가서 3 장 10 절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11 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1,2,3 장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있는 현주소가 기가 막힌 시궁창 같은 곳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상태를 깨닫게 되고 지적해 줄 때 찢려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사망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철학이나 심리학에 찢들어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을 찢러 쪼개지 않고서는 그들은 자신의 모습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숨어있는 저들을 깨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찢려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워낙 많은 것에 겹겹이 싸여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의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쪽에 날이 있다는 것은 뭐니까? 찌를 때 한쪽 날은 바로 진리의 날입니다. 그 사람을 찢어서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가 숨어 있는 자들을 찾아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이 임무를 잘 완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상하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한 일을 바로 상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요. 하나님의 심판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심판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보좌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 20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석에 갈 일이 없으니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은 다 제쳐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숨어 있는 원근각지의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견딜 수 없더라고요. ‘야,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이구나.’ 옛날 디엘 무디가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한 영혼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을 보고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것처럼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영원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던 일을 다 때려 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사도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다.” 우리 번역에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뜻입니다. upside down, 세상을 upside down 들어 엮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고 있는 자들을 뒤집어 놓아 죄가 다 드러나게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란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신다면 축복된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